

방송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의견

1월 25일 MBC 새 예능 프로그램으로 방송 예정인 '애니멀즈'에 대한 예고편과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시청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애니멀즈'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이용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동물과 교감하는 모습으로 동물과 사람의 새로운 공존 방법을 모색해본다'는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를 환영하며, 우리 사회의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반면에, 동물들이 방송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청자들의 재미나 제작 과정의 효율성만이 앞세워져 동물의 복지와 안전이 촬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거나, 인위적인 연출로 동물의 생태적 습성이나 서식 환경이 지나치게 왜곡되어 묘사한 내용, 근본적으로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수반된 산업형태를 인간과의 교감으로 미화해 묘사한 내용 등이 방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동물을 이용한 대한민국 방송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국내에는 방송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촬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 중 동물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MBC '애니멀즈'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즉흥성이 강한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동물뿐 아니라 동물을 다루는 출연진, 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동물을 이용한 방송 촬영 시 지켜야 할 기본 지침과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니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애니멀즈'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동물을 생명이자 생태계의 일부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을 불가피하게 촬영에 이용할 경우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먼저 고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은 널리 알려 차후 제작되는 프로그램에서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시청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진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시정 방향을 논의해,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애니멀즈가 방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방송 촬영에 동물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지침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
2015년 1월 20일

○ 동물을 이용한 방송 촬영 시 주의사항

<일반적인 지침>

- 제작사는 방송 촬영에 이용되는 모든 동물이 동물복지에 적합하게 관리 받도록 해야 한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동물뿐 아니라 작품의 배경에 사용되거나 촬영되지 않는 동물 모두가 관리 대상이다.
- 방송 촬영을 목적으로 어떤 동물도 죽임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 방송 촬영을 목적으로 어떤 동물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뤄지지 않아야 한다.
- 동물 종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과 동물을 다루는 데 숙련된 사람이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충분히 돌볼 만큼 있어야 한다.
- 반드시 오직 동물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임자를 한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른 업무와 병행 X)
- 방송 촬영 시 동물에게 영향을 가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물 관리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모든 동물들은 이동 시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현행 법규에 맞게 이동되어야 한다.
- 운송된 동물들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동물들은 절대로 사람이 없거나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물들을 적절히 보살필 능력이 없는 사람과 함께 남겨져서는 안 된다.
- 동물들은 매일 상해나 질병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즉시' 필요한 의학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제작사는 동물들과 함께 촬영하는 시간이나 계절을 선택할 때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극한의 추위나 폭염일 때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더운 여름에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촬영을 해야 하며, 추운 겨울에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에 촬영해야 한다. 또한 더위를 식히거나 따뜻하게 만들어줄 쉴 터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 제작사, 스태프, 수의사, 동물을 다루는 사람은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원활히 의사소통해야 하고, 촬영 전, 리허설, 촬영하는 동안 동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데 서로 협조해야 한다. 만약 촬영에 변화가 생길 경우 제작사는 즉시 변경된 사항에 대해 공지하고, 모두 숙지해야 한다.
- 모든 환경과 상황이 촬영할 준비가 됐을 때 동물들을 휴식 공간에서 데려와 촬영에 투입해야 한다.
- 촬영 장소와 분리된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이 카메라 앞에 있을 때가 아니면, 그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동물들은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종의 동물과 함께 촬영할 경우 전문가의 감독 하에 각 동물들이 서로 익숙해지고, 환경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만약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 다른 동물들을 포함한 장면은 분리해서 촬영해야 한다.
- 모든 동물들의 필요는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종과 나이, 동물의 상태. 촬영을 위해 요구된 활동량, 지역이나 날씨 상황에 따라. 동물의 호흡량과 행동변화를 점검해야 한다.

<동물을 수용할 시설 및 관리>

- 서로 다른 시설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동물들이 온다면 질병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동물들을 수용해야 한다.
- 서로 다른 시설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동물들이 함께 수용된다면 서로 해를 가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의 감독 하에 서로 소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모든 동물들은 각 종 특성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 시설은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 건강과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온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동물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배경에 사용되는 동물이나 대본에 없는 동물들 혹은 출연진 개인의 동물 모두에게 다음 사항을 충족해 줘야 한다.
 - 촬영장소와 세트장에 충분한 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 뜨거운 햇볕과 추위, 비와 눈 혹은 다른 요소들로부터 적합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불안함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육체적 변화를 상시 감독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쉴 수 있는 집이나 텐트, 환풍기나 선풍기, 분무기, 바람막이 등을 구비해야 한다.

<촬영 중 관리>

- 동물들 사이에 싸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격적인 동물은 반드시 다른 동물들과 격리시켜야 한다.
- 동물들끼리 싸우는 장면, 사냥이나 낚시 장면, 동물이 죽는 장면은 반드시 시뮬레이션으로 해야 한다.
-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의 촬영을 위해 위험에 처하거나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안전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하며 다른 동물들이나 출연진, 스태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훈련된 동물을 사용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줘야 한다.
- 촬영 시 동물들에게 충분한 운동과 휴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동물들은 그들이 촬영에 임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혹은 동일한 시간 동안 쉴 수 있어야 한다.
- 심신이 지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동물이 있다면 추가 촬영을 진행하기 전에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촬영해야 한다.
- 동물 발바닥 관리 : 차갑거나 뜨거운 표면 혹은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거친 표면에 동물의 발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면이 뜨겁거나 거친 콘크리트, 아스팔트, 얼음바

닥 등 동물의 발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은 피하는 것이 좋음. 발의 부상은 동물의 복지와 밀접하기 때문)

-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최적의 상태의 동물들이 촬영에 투입되어야 한다. 저체중이나 과체중 혹은 육체적·행동학적 상태가 부적합한 동물들이 촬영에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 아픈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들과 격리 조치해야 하며, 촬영에 임해서는 안 된다.
- 동물이 탈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작사와 동물을 다루는 사람은 동물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또한 사고를 대비해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놓아야 한다.
- 동물을 훈련 하거나 동물에게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줄이나 목걸이, 입마개 등은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인도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훈련을 위해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동물에게 전기 자극을 주는 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신 중인 동물의 관리& 출산 장면 촬영 시>

- 임신, 출산으로 간호가 필요한 동물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 임신 중인 동물과 포유 중인 동물은 과격한 장면의 촬영에 이용될 수 없다.
- 임신 중인 동물을 촬영할 때는 동물을 너무 밝은 조명이나 플래쉬, 소음, 굉음 등과 같은 과도한 자극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과도한 움직임을 유발하는 행동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 출산 후 새끼를 돌보는 어미를 새끼를 돌보는 장소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서는 안 된다.
- 어미의 돌봄이 필요한 새끼들은 반드시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한다.
- 촬영을 위해 동물의 출산 장면은 유도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동물의 자연적인 출산을 촬영한다면 다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촬영에 어떤 효과도 없어야 하며 촬영 중 어떠한 출연자도 출연해서는 안 된다.
- 출산 시 수의사는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며, 촬영 스태프들은 촬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야 한다.
- 출산 시 질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촬영장에 드나드는 모든 스태프와 출연자는 손과 발 소독 등과 같은 엄격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 출산 장면 촬영 시 다른 동물은 출연할 수 없다.

★ 참고자료

- “No Animals Were Harmed” 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animals in filmed media.
- RSCPA, Guidelines for the welfare of performing animals.